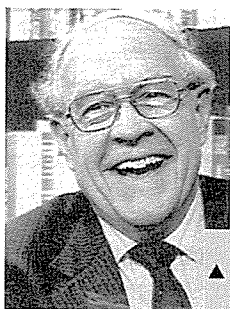


'95 바위과학상 브룩스교수 수상

컴퓨터발전 공헌 ... 상금 25만달러 받아
비즈니스상은 데이빗 팩커드 영광



▲ 바위과학상 수상자
프레드릭 브룩스

미국에서 가장 고액의 과학상인 바위과학상(Bower Award and Prize in Science)과 바위비즈니스상은 1995년 수상대상자로서 컴퓨터기술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을 선정했다. 미국 필라델피아시의 프랭클린연구소 과학관이 매년 수여하는 이 상은 생명 및 물리적 과학분야의 뛰어난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금메달과 25만달러의 현금을 수여한다. 1995년도 상은 1996년 5월에 수여한다.

1995년 바위과학상 수상자는 컴퓨터 아키텍처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으로 발전하게 규정한 프레드릭 P. 브룩스 2세(64세)를 선정하는 한편 바위비즈니스상은 창의적인 경영을 실천한 휴렛패

커드사 공동창업자인 데이빗 팩커드(83세)에게 수여된다. 팩커드는 금메달만 받고 상금은 받지 않는다.

이 수상식은 공교롭게도 1946년 필라델피아소재 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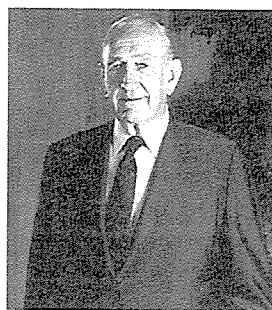
베이니아대학에서 제작된 최초의 범용전자계산기인 에니악(ENIAC)발명 50주년 기념식과 때를 같이 하여 거행된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컴퓨터과학과를 창설한 브룩스교수는 1960년대 초에 IBM의 360 시리즈 메인프레임 컴퓨터 가족을 설계한 공로로 수상하게 되었다. 그는 뉴욕주 포우킵시 소재 IBM시설에서 360 시리즈 컴퓨터의 엔지니어링, 마케팅 및 아키텍처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최초의 대화형 운용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된 시스템을 발명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건반으로 타자하고 스크린 위의 글자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시스템/360사업은 혁명적인 것이었으며 크고

작은 7개의 컴퓨터들이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명령을 집행하여 모든 지원 소프트웨어를 표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브룩스는 또 그의 저서 'The Mythical Man-Month : Essays in Software Engineering (Reading, Mass., Addison-Wesley)'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1964년이래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브룩스는 수상금의 대부분을 자선목적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리콘밸리의 차고에서 창업한 작은 발진기 회사를 오늘날 세계적인 전자메이커 휴렛팩커드사가지고 컴퓨터과학을 발전시킨 공헌을 인정받았다.



▲ 바위비즈니스상 수상자
데이빗 팩커드

팩커드는 회사를 전설적인 'HP식'으로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게 해야 하기도는 성취할 필요가 있다고 타이르는 동기부여 방법의 경영에서 종업원들과의 문호개방정책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기법을 개발했으며 이것은 오늘날 미국 기업계에서 보편화되었다. 팩커드와 동업자인 윌리엄 휴렛은 1930년대 초 스탠퍼드대학에서 만났다. 팩커드는 전기공학을 공부했고 휴렛은 과학을 공부했다.

1938년 두사람은 팔로알토의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서 5백38달러를 출자하여 차고에서 전자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의 첫번째의 고객은 71달러50센트를 내고 8개의 오디오 발진기를 구입한 월트 디즈니의 음향엔지니어였다.

이들의 사업은 2차대전 후의 전자붐을 타고 번창했다. 팩커드는 1969년에서 1971년간 닉슨대통령 밑에서 국방차관으로 일했다. 적극적인 자선사업가인 팩커드는 4천9백만달러를 들여 몬테리 베이 수족관을 지어 기증하기도 했다. ⑤7